

부산시, 시민주권 실현 민관 협치도시 시동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는 작년 4월부터 용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민관공동 숙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제1차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3개년(‘22~‘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협치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1차 기본계획으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의 도래에 따른 새롭고 복잡한 사회문제의 등장과 해결을 위한 시민의 시정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능동적인 민관협치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행복공동체 부산'을 목표로 하고 ▲협치문화 정착 ▲협치친화적 조직 기반 고도화 ▲시민참여제도 강화 ▲참여와 분권의 지역협치 모델 구축 ▲협치주체 역량강화 등의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5대 추진전략별로 ▲(협치문화 정착) 시정 진단과 광고 프로세스 구축·실행 ▲(협치친화적 조직 기반 고도화) 민관협치 기반의 주민참여예산제 고도화 ▲(시민참여제도 강화)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 ▲(참여와 분권의 지역협치 모델 구축) 지자구·군 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협치주체 역량강화) 주체별 맞춤형 협치 역량강화 등 핵심과제를 1개씩 선정하여 소통을 통한 시민 권한 강화에 지향점을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형 협치 현안 과제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민관협치 유치 전개'를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민관협치 역량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1차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치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다각화를 실현하여 미래로 먼저 나아가는 협치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



두바이몰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

부산시 도시브랜드 제고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두바이엑스포로 인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UAE 두바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미디어아트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는 오는 16일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에 맞춰, 2021년 12월 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2개 영상을 각각 1달씩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출 장소는 두바이몰 내 Dubai Aquarium · Underwater Zoo에 있는 가로 50m, 세로 14m의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이다. 두바이몰은 축구장 20개를 합친 약 34만 평의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명소이다.

지난 1월 4일까지 송출된 첫 번째 영상은 현대미술가 '이상원 작가'의 'The Panoramic -해운대'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와 한국의 전통 회화재료인 '수묵'을 모티브로 한다. 화선지의 종이 결을 따라 벗겨나가는 수묵의 막선이 해운대의 수평선으로 변하고 곧이어 해운대의 파도와 해변, 그리고 그곳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새 물결을 전 세계인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anoramic -해운대'에 이어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송출될 두 번째 영상은 미디어 아티스트 유니 '에이스트리트(a' strict)'의 'Wave'다. 이는 평면의 스크린을 거센 파도가 요동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퍼블릭 미디어아트로, 전광판 전체에 착시 현상을 통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아나톨피 일루전(Anamorphic illusion)' 기법이 이용되었다. 보는 이를 집어삼킬 듯 힘차게 다가오다 이내 유리 벽에 부딪히고 사그라지는 역동적인 파도는 90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강렬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작품은 부산의 파도(The wave from Busan, Korea)를 공통 주제로 삼고 있어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두바이에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크게 이어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바이 물을 방문하는 각국 유력 인사들의 뇌리에 부산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홍보는 한국의 날 표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의 최대 방점이 되는 최적의 시기이다. 두바이에서 연중 가장 좋은 날씨에 수많은 관광객이 물려들 최적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며, "내년에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



울산시교육청, 겨울방학 교과보충 집중 지원

초등학교는 두드림학교 연계 학습 지원 강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새 학기 전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희망 학생에게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회복을 돋구고 지난해 9월부터 새 학기 전까지 예산 5억 원을 들여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은 새 학기 전 겨울방학 등에도 계속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두드림학교 학습 지원 강화 사업 중·고등학교는 교과 중심 맞춤형 교육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전 초·중학교에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두드림학교는 학습장애, 정서장애, 돌봄 결여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력보장 사업이다.

보충 수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방과 후, 방학 중에 소규모(1대1 등) 대면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113교 교사 1,958명이 학생 2,856명을 지도하고, 중등은 전체 중·고교 교사 3,017명이 학생 2만 6,786명을 지도한다.

이외에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과 학습·심리·정서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의 역량 만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 부진 학생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느린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학습결손과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끌어올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울산시, 2022년 시정 핵심과제 선정

청년희망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전국체전 개최 등 12개

울산시가 '2022년 시정 핵심과제' 12개를 선정하고 시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핵심과제는 전 실·국·본부에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시의성과 중요성, 시민체감도 등을 두루 검토해 선정했다.

추진방향은 시정 성과 극대화와 함께 코로나로부터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울산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전국 최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초광역 협력 시대 주도 ▲시민 참여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주력산업 일자리 활성화 제고와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 육성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도시 기반 마련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 ▲추가로 고통없는 에너지복지 울산 간선도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울산의료원 건립 ▲울산에서 하나 되는 화합·도약·평화 체전 개최 ▲산업도시 60년을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트램·광역철도 도입과 시동팔달 교통망 확충도 역점 추진할 과제다.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만 24세 울산 청년 모두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 한다. 청년 무직자(니트 청년,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지원사업과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보장제도도 신설한다.

청년채용 장려금 주가지원,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실습(인턴) 지원사업, 청년가구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 최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초광역 협력 시대 주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 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메가시티 성공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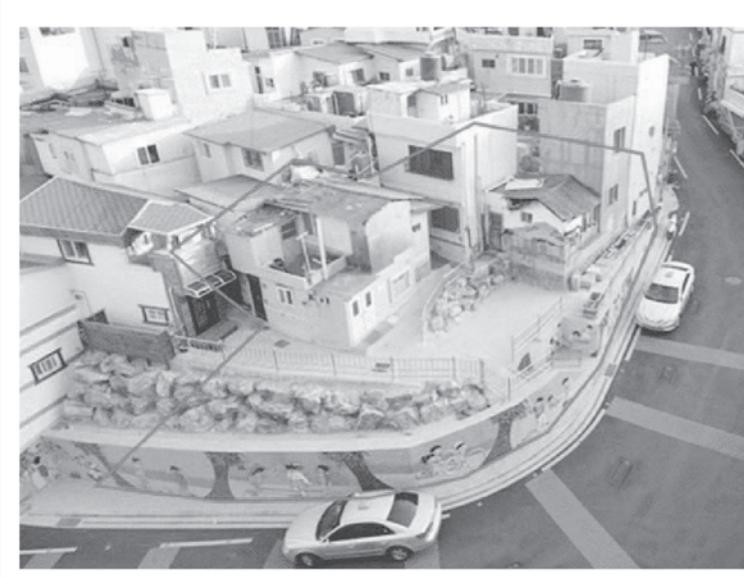
로 만들기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고 시민 공감 대를 넓혀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오름동맹(울산·경주·포항)과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영남권 5개 지자체) 등 인근 도시와도 협력을 강화해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이어르는 '영남권 그린드 메가시티' 조성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 참여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시민 공감·참여 재난정책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유수 기자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부산시,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



부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가 부산시의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등록은 지난해 9월 관할 관청인 서구청이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를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서구청의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등록예고를 거쳐 12월 23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등록심의를 통과했고 등록 고시를 통해 부산시의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공식 등록됐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는 서구 아미동 229-2 외 1필지의 토지와 상부 시설물들을 포함하는 문화재로,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밀집했던 부산의 긴박함을 반영하듯 일본인 묘지 위에 목구조물의 임시건축물을 지어·전용 과정 없이 오늘날까지 주거지로 이용되어왔다.

'산자의 주택'과 '죽은자의 묘지'가 동거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의 생활상과 주거의 변화양상이 잘 보존된 도시공간으로 부산 지역에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이상봉 기자